

‘인구절벽 위기’ 전남도 대책마련 총력

도 ‘희망디딤돌 통장’으로 청년 붙들기 나서

일자리 넘어 주거·복지까지 113개 과제 발굴

저축에도 ‘1+1’이 있다.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이다. 이 통장은 근로청년에 360만원을 저축하면 전남도가 360만원을 적립해준다. 인구절벽에 내몰린 전남이 청년들을 붙들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5월 1차 보고회 후 실·국별로 발굴한 일자리 창출, 출산·양육,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고령화 대비 등 5개 분야 113건 과제가 보고됐다.

주요 과제로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이 제시됐다. 저소득 근로청년과 전남도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통장으로, 근로청년에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전남도

도 똑같이 10만원을 지원해 3년간 745만원(본인 360만원, 도 360만원, 이자 25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창업·결혼·주거비 등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사업이다.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기반 강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청년활동가), 수출형 기계부품 가공산업 육성기반, 인구 늘리기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등도 검토 중이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다자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자녀 품귀육아 희망플러스 통장 개설·운영 등 제도가 포함됐다. 정주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노후 산업인

지 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광역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치유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해 시·군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군 부사관급 이상 간부의 주소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구성될 인구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시책 정책자문 결과를 반영해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 간부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 말고는 실질적 효과가 없는 등 상당수 시책이 전시성이거나 급조한 시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만큼 전남 인

구 위기는 심각하다”며 “30년 이내 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인구는 지난 3월 190만명이 붕괴됐다.

각종 지표도 어둡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경제 활력의 주역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유소년 비율은 13위, 고령화 비율 1위, 1인 가구 비중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절벽을 맞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45년 전남 장래인구 추계에서는 전남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했다. 2015년 대비 2045년 생산가능인구 32.4%, 유소년 인구 36.4%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65세 이상은 112.4%,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08.4%가 각각 늘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통문화도시 전주서 “책이랑 놀자”

내달 1~3일 ‘대한민국 독서대전’ 열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다. 도시 곳곳에서 책 읽기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독서대전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강연·행사·공연·전시·체험행사 등 288개에 달하고 전국 출판사(85개)를 비롯, 독서단체 등 참여 기관·단체도 239곳에 이른다.

우선, 출판사가 한자리에 모인 ‘출판사 북페어’의 경우 ▲그림책 킬러링 ▲동화책 만들기 ▲출판사 초청 작가와의 만남 ▲동화 그림책 낭송회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책 읽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12회 독서문화한마당과 작은도서관 한마당(경기전) ▲북판인쇄 체험, 나만의 옛 책 만들기(완판본문화관) ▲한국

도서관협회 주최, ‘책 오래 읽기 대회’ ▲전주 동네서점 7곳에서 펼쳐지는 ‘동네방네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책방여행’ 등은 추억을 쌓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외 ▲인문학 콘서트 ▲작은 북 콘서트 ▲시인·작가와의 수다 ▲전주책특강 ▲한책장터 등 각종 강연·공연과 ▲한국의 꽃심, 전주가 권하는 책과 글 ▲대통령의 사재를 채운 16권의 추천도서 등 각종 기획·전시 프로그램, ▲2017 지역서점 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술·토론회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전을 비롯한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김지용기자 dok2000@



조생종 벼 본격 수확 올해 햅쌀 수확이 시작됐다. 해남군은 고천암 일원 벼 조기재배 시범단지(42ha)를 시작으로 조생종 벼의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벼는 40kg 1가마당 4만 7000원에 옥천농협에서 수매,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햅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해남군 제공>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 바이오의약품 GMP 적합 인증

전국 바이오특화센터 중 최초...백신산업 활성화 기대

(제)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품연구센터는 2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바이오의약품 GMP ‘적합’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제제 등 수탁제 조업제’로서 GMP 적합 인증을 받은 것은 전국 20여 바이오특화센터 중 처음이다.

바이오의약품 GMP는 의약품 원료의 구입,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공인 기준이다. GM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해

야 한다.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는 이번 GMP 적합 인증으로 현재 위탁 생산하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시료의 품질을 공인 받게 됐다. 이로써 국내외 제약 기업들의 위탁생산 주문도 늘 것으로 예상돼 지역 바이오 의약품 산업 활성화와 함께 재단의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에 사용되는 비임상·임상시험 시료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등 이미 국내외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산업부로부터 GMP 전문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돼 2014년부터 매년 20여 명의 GMP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한옥마을사업 놓고 입주예정자와 갈등

시행지침 개선 요구

전남도가 추진중인 한옥마을사업을 놓고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건설비 절감 등을 위한 조치라는 전남도 입장에도,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잡음을 없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정한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일대 ‘한옥마을’의 경우 22채의 한옥이 2만2665㎡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 2010년 착공했지만 여태껏 6채만 완료됐을 뿐 나머진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사를 미루거나 진행중인 한옥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 전남도의 ‘한옥사업 시행지침’이 공사를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꼽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침에 포함된 ‘동시 착공 취지를 살려 가급적 3개 이내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업체 선정 과정의 재량권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입주 예정자들 스스로 지점순서 파악까지 작성한 점을 들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옥마을 입주 예정자들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2~3개 업체를 건축시공업자로 선정토록 한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드는 한옥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정자들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점은 10채 이상 마을 조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 취지도 담겨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에 따라 10채 이상 건립할 경우 한옥마을로 지정받을 수 있고 융자금(최대 2억원) 외에 보조금 30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마을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

한편, 전남도는 101개 한옥마을(1720채)을 지정한 상태로, 현재 1390채가 완공됐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정읍사문화제 부도(婦道)상 후보자 추천받아요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는 제28회 정읍사문화제 부도(婦道)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5년이상 정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부도(婦道)-부모공경, 가정화목, 헌신’, ‘부덕(婦德)-어질고 너그러운 덕행’을 갖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시상

은 10월 20일 제 28회 정읍사문화제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문의 063-532-8880.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순창군 인계면 읍에서 5분거리 대지 1302㎡ 마을도 좋음 7천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동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약산면 득암리 해수욕장점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원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팬션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오피스

- 별장용주택 화순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정도 600평 3억3천 상등요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물 124㎡ 임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 2층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시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합평역 인근 대로점 주가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9천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읍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제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부안군 변산면 땅 1675㎡ 건물2층 430평 객실 43개 10억 가격조정됨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물 334㎡ 건물 상태 좋음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원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시가 2억 3천 매도 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최고 투자처·파트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산 3, 4, 5, 6번지
- 비금도 내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 관리지역
- 육지에서 1km 지점
- 향후 개발까지 100억이상, 투자까지 최고
- 매 14억, 현금 4억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